

국어 윤희재/황건우팀의



합격 비법



윤희재/황건우팀

2025학년도

을킬 적중 문항!

문항 번호	주제	적중 내역
A형 1번	읽기 능력	문제풀이반 3회 3번, 이론반 마인드맵
A형 2번	피동사, 사동사	이론반1 빔자료
A형 3번	용언의 특성	이론반1 빔자료
A형 5번	설득 담화의 청중 분석	문제풀이반 3회 10번, 이론반 마인드맵
A형 6번	돌려읽기 전략	모의고사반 4회 7번
A형 7번	논증 요소	교육과정반 교재
A형 8번	단어 형성법	이론반1 빔자료
A형 9번	구개음화	이론반2 빔자료, 문제풀이반 8회 11번
B형 1번	작문 평가(채점자 신뢰도)	이론반 마인드맵, 파이널 자료
B형 3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론반 마인드맵
B형 4번	추론적, 비판적 읽기	적용 문제-교육과정반 교재
B형 5번	중의성	이론반1 빔자료
B형 6번	선어말 어미	모의고사 5회 3번, 모의고사 9회 8번
B형 7번	변별적 자질	문제풀이반 2회 2번, 파이널 자료




A형 1번	독서 영역	강좌명	7-8월 문제풀이반/1-3월 이론반
-------	-------	-----	---------------------


기출문제 A형 1번(읽기 능력)	적중 근거 자료 (문제풀이반 3회 3번)													
<p>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1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읽기 능력은 (㉠해독) 능력에서 독해 능력으로 발달한다. (㉡해독) 능력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등의 하위 기능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 재인 기능과 독해 능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읽기 유창성은 자동성, (㉢정확)성, 표현성으로 구성되는데, 자동성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 (㉢정확)성은 글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표현성은 글을 적절한 의미 단위로 유연하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 부족은 다른 여러 교과와 전 반적인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p> </div>	<p>3. 다음은 읽기 지도와 관련하여 송 교사와 양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전략> 양 교사: 보통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읽기 유창성이 향상되고, 읽기 유창성이 향상되면 이해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므로 글 이해가 더딘 이유를 찾아 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읽기 유창성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서도 적절한 의미 단위로 띄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읽기 유창성은 인지적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글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인 자동성, 단어를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인 정확성, 글에 감정을 실으면서 적절한 의미 단위로 띄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인 (㉠표현성)으로 구성됩니다.</p> </div>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해독 기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독</td> <td>글자를 소리로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능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독의 하위 기능</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음운 인식</td> <td>언어가 소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하는 능력</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단어 재인</td> <td>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시각적 부호인 글자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읽기 유창성</td> <td>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td> </tr> </table> </div>	해독 기능	해독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능력	해독의 하위 기능		① 음운 인식	언어가 소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하는 능력		② 단어 재인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시각적 부호인 글자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③ 읽기 유창성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해독 기능	해독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능력											
	해독의 하위 기능													
	① 음운 인식	언어가 소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하는 능력												
	② 단어 재인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시각적 부호인 글자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③ 읽기 유창성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A형 2번	현대 문법 영역	강좌명	1-3월 문법 이론반
-------	----------	-----	-------------

기출문제 A형 2번(피동사, 사동사)	적중 근거 자료 (1-3월 문법 이론반 빙자료)														
<p>(1)의 '-히-'는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고, (2)의 '-히-'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p> <p>(1) 가.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잡혔다. 나. 도로가 차들로 막혔다.</p> <p>(2) 가.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 나. 그는 난로에 물을 덮혔다.</p> <p>(1가)과 (1나)에서 '-히-'에 의해 형성된 피동사들의 경우에는 (㉠ 서술어 자릿수)이/가 같다. 반면 (1가)과 (2나)에서 '-히-'에 의해 형성된 사동사들의 경우에는 (㉠ 서술어 자릿수)이/가 같지 않다.</p> <p>(1)의 '잡히-'와 (2)의 '잡히-'는 '잡-'에서 파생된 어간들이다. 이때 동사 '잡-'은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동사로 해석된다.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은 각각 (㉠ 능동사, 주동사)이다. 이처럼 '잡-'이 (㉠ 능동사, 주동사) 중 어떤 동사인지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되는 동사가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p>	<p>(1) 능동문, 피동문 예시</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311)</td> <td>가.</td> <td>경찰이 도둑을 쫓고 있다.</td> <td>능동문</td> </tr> <tr> <td>나.</td> <td>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td> <td>피동문</td> </tr> </table> <p>▶ (311가)는 능동문으로 서술어 쫓다는 두 자리 서술어 (311나)에서는 피동사 쫓기다가 쓰였고 능동주 경찰이 부사어로 쓰였는데 피동문의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필수 부사어가 아님 내용 이어짐</p> <p>▶ 따라서 피동문의 보충어는 능동문의 보충어에 비해 하나 줄어든 것 → 곧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줄어든 것</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2) 주동문, 사동문 예시</p> <p>(2) 주동문, 사동문 예시</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312)</td> <td>가.</td> <td>돌이가 책을 읽는다.</td> <td>주동문</td> </tr> <tr> <td>나.</td> <td>선생님이 돌이에게 책을 읽힌다.</td> <td>사동문</td> </tr> </table> <p>▶ (312가)는 주동문으로 서술어 읽는다.는 두 자리 서술어 ▶ (312나)는 사동주 선생님이 피사동주 돌이의 읽는 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서술어 읽힌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 내용 이어짐</p> <p>▶ 이처럼 사동문은 주동문에 비해 보충어의 수가 하나 늘어나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했음을 바로 알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3. 피동과 사동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피, 사동문</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적중</p> </div>	(311)	가.	경찰이 도둑을 쫓고 있다.	능동문	나.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피동문	(312)	가.	돌이가 책을 읽는다.	주동문	나.	선생님이 돌이에게 책을 읽힌다.	사동문
(311)	가.		경찰이 도둑을 쫓고 있다.	능동문											
	나.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피동문												
(312)	가.	돌이가 책을 읽는다.	주동문												
	나.	선생님이 돌이에게 책을 읽힌다.	사동문												

A형 3번	현대 문법 영역	강좌명	1-3월 문법 이론반
-------	----------	-----	-------------


기출문제 A형 3번(용언의 특성)	적중 근거 자료 (1-3월 문법 이론반 빙자료)						
<p>문법적인 설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이 개념적 정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 설명이 다른 설명들과 정합적이어야 한다.</p> <p>(1) 밥 먹어. (2) 밥 먹어요. (3) 일찍 일어나.</p> <p>(2)에서 ‘먹어요’의 ‘요’의 경우, (1)의 ‘먹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어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1)의 ‘먹어’에서 (㉠ ‘-어’가 종결어미)이라는 것과 (2)의 ‘먹어요’에서 ‘요’가 어미라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p> <p>(3)의 ‘일어나’는 동사 ‘일어나-’에 어미 ‘-아’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일어나-+-아 → 일어나’에서 탈락한 /ㅏ/가 어미의 /ㅏ/인지, 동사 어간 ‘일어나-’의 /ㅏ/인지를 음운론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태·통사론적 사실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는 동사 어간의 /ㅏ/가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 (3)에서 ‘일어나’는 문장에서 서술어인데, ‘일어나’가 서술어라는 사실은 ‘일어나’가 (㉠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일어나’가 (㉡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라는 사실과 ‘일어나’에서 탈락한 모음이 어미의 /ㅏ/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p>	<p>(2) 동음 탈락</p> <p>개념 ‘어간말 모음’과 ‘어미초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 현상</p> <p>▶ 예시</p> <table border="1"> <tr> <td>(47) 나.</td> <td>가 + 아서 → [가서]</td> <td>차 + 아도 → [차도]</td> </tr> <tr> <td></td> <td>서 + 어라 → [서라]</td> <td>건너 + 어서 → [건너서]</td> </tr> </table> <p>⇒ 이때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지 어미의 모음이 탈락하는지는 이견이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각주61)</p> <p>각주 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아 → [가], 서 + 어 → [서]와 같은 예에서 어미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하면 어미는 그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마는 셈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됨 이 때문에 보통 어간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봄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3) 'ㅏ/ㅑ' 뒤 'ㄱ' 탈락</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47) 나.	가 + 아서 → [가서]	차 + 아도 → [차도]		서 + 어라 → [서라]	건너 + 어서 → [건너서]
(47) 나.	가 + 아서 → [가서]	차 + 아도 → [차도]					
	서 + 어라 → [서라]	건너 + 어서 → [건너서]					

A형 5번	화법 영역	강좌명	1-3월이론반, 7-8월문제풀이반
-------	-------	-----	--------------------


기출문제 A형 5번(설득 담화 청중 분석)	적중 근거 자료 (문제풀이반 3회 10번, 이론반 마인드맵)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를 참고하여, '김 교사'가 ㉠에게 '조건 1~4' 중 무엇을 제시했는지 밝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김 교사'가 ㉠에게 제시했을 '조건'에서 ㉡~㉣ 중 어느 것이 설득에 가장 효과적일지 밝히고, 그 이유를 해당 '조건'의 청중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서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1. 평가 범위'와 '3. 평가 과제'를 참고하여, ㉠을 기준으로 (나)의 ㉡문단을 평가하여 서술할 것(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의 반영 여부를 (나)의 ㉢, ㉣문단을 활용하여 근거와 함께 서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에게 제시한 조건은 '조건2'이다. 그 이유는 사안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으면 허용 혹은 거부 범위가 넓으며, 메시지가 거부 범위에 있고 거부 범위가 넓으면 주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조건의 과제이다.</p> <p>설득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다. 그 이유는 청중은 개인적 관련성이 높고, 기본 입장이 반대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주장과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할 때 예상되는 반론까지 모두 검토하였음을 보여주어(신뢰감을 주어) 화자의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심리적 정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사전 조사에서 학생 화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청중이 많았으므로 ㉢ 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과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p> <p>㉠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 마인드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기존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화자 주장이나 말하기 주제에 대해 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 메시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자 주장에 찬성: 일면 메시지 전략이 효과적임 화자 주장에 반대: 양면 메시지 전략이 효과적임 반대 입장을 가진 청자 고려사항: 태도 변화의 기대 목표를 낮추고, 반대 입장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어 초기에 공동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4) 개인적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화자의 설득 주장에 대해 청자가 지각하는 관련성의 정도 경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관련성이 낮은 경우: 청자의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자의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극명히 확대됨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변인 영향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관련성' 변인은 '청자의 기존 입장' 변인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면서 설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청자 입장이 찬성: 개인적 관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청자 입장이 반대: 개인화를 화자의 주장쪽으로 전환하여 시도 </div>



A형 6번	작문 영역	강좌명	9-11월 모의고사반
-------	-------	-----	-------------

기출문제 A형 6번(돌려 읽기 전략)	적중 근거 자료 (모의고사반 4회 7번)
<p>(나) 수업 연구회</p> <p>하 교사: 오늘 수업 연구회의 주제는 ‘고쳐쓰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쳐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p> <p>김 교사: 저는 학생들이 고쳐쓰기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쓴 초고를 읽으며 글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하 교사: 활동 개요를 잘 보았습니다. 고쳐쓰기 활동을 개발하며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인가요?</p> <p>김 교사: ㉠ 평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여 어법상의 정확성과 글 내적 구조의 완결성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p> <p>박 교사: 김 선생님의 고쳐쓰기 활동 개요가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있어서 좋지만 ㉢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고쳐쓰기를 다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p> <p>하 교사: 그리고 고쳐쓰기 과정에서 ㉡ 필자의 자기 중심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면 더 좋겠네요.</p>	<p>7. 다음은 ‘쓰기 전략 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교사들 간의 대화를 글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전략></p> <p>최 교사: 학생들이 떠올리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중심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아이디어들을 도형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략은 아이디어 간의 관계 표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p>안 교사: 저는 고쳐쓰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돌려 읽기 전략’을 활용할 경우, ㉡ 필자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 ㉢에서 각각 고쳐쓰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차이를 서술할 것. ○ ㉡이 무엇인지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1가지 쓸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필자의 자기중심성이란 필자가 독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 역시 자신과 같은 시각에서 글을 읽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필자의 자기 중심성을 완화할 수 있는 고쳐쓰기 전략으로는 돌려 읽기 전략이 있다.</p>	

A형 7번	독서, 작문 영역	강좌명	4-6월 교육과정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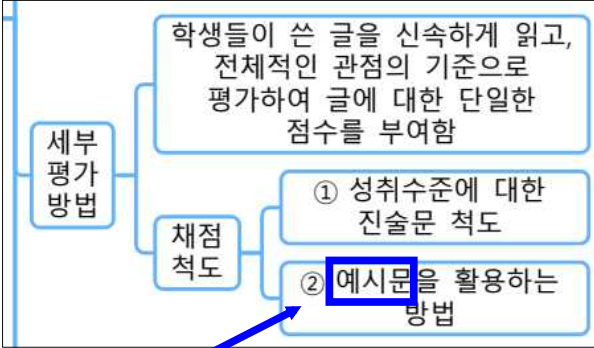

기출문제 A형 7번(논증 요소)	적중 근거 자료 (4-6월 교육과정반)										
<p>(다) 교사 간담회 김 교사 : 읽기 쓰기 통합 과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은 독자와 필자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글 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도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두 부분 모두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p> <p>신 교사 : 글의 주제는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문단이 ㉢논증의 구성 요소인 주장, 이유, 근거 중 하나를 누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1에서, ㉡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2의 '선별한 정보'에서 각각 1개씩 찾아서 설명할 것. ○ 활동3의 [A]에서 ㉢ 중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A]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안을 읽기 자료 2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A]에서 누락된 것은 '근거'이다. 주장에 대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읽기 자료2'에 제시된 K일보 기사 내용(3년간 플라스틱을 2,570통 절감)과 같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해야 한다.</p>	<p>· 논증의 개념과 요소 - 논증의 개념 : 하나 이상의 명제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것 - 논증의 요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장</td> <td>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의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근거</td> <td>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근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유</td> <td>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론</td> <td>전제, 주장, 결론에 반대하는 이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론에 대한 반박</td> <td>자신이 제기한 반론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주장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의견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근거	이유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	반론	전제, 주장, 결론에 반대하는 이유	반론에 대한 반박	자신이 제기한 반론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
주장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의견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근거										
이유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										
반론	전제, 주장, 결론에 반대하는 이유										
반론에 대한 반박	자신이 제기한 반론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										

A형 9번	국어사 영역	강좌명	4-6월 문법 이론반/문제풀이반
-------	--------	-----	-------------------


기출문제 A형 9번(구개음화)	적중 근거 자료 (4-6월 문법 이론반/ 7-8월 문제풀이반)		
<p>현대 국어에서는 ‘경구개 자음-모음’ 연쇄와 ‘경구개 자음-y계 (j계) 이중모음’ 연쇄가 대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표기상으로는 ‘(자신감을) 가져’처럼 ‘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음은 [가저]이다.</p> <p>㉠ 15세기 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국어에 발생한 구개음화에는 /ㄷ/ 구개음화뿐만 아니라 /ㄱ/가 /ㄷ/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도 있었다. /ㄷ/ 구개음화는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했지만, <중략></p> <p>드물지만 언중이 오분석하여 어간의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ㅂ/ 불규칙 용언 ‘줍-’이 이에 해당한다. ‘줍-’은 15세기 국어에서는 ‘쭈-’이었는데, /ㅅ/ 소멸 후 ‘주스니 > 주으니’로 변화되었고, 이 ‘주으니’가 다시 ‘주우니’로 변동되었다. 이 ‘주우니’를 /ㅂ/ 불규칙 활용형으로 오분석하여 ‘줍-’으로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다.</p>	<p>근거① 구개음화 현상이 근대 한국어 시기 들어서 발생함</p> <p>▶ 구개음화 현상은 자음 체계에서 경구개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됨</p> <p>▪ 따라서 스-계열이 아직 치음이었던 중세 한국어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었음</p> <p>▪ 스-계열이 경구개음으로 바뀐 근대 한국어 시기에 와서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있음</p>		
<p align="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이 말해 주는 15세기 국어 /ㄷ/의 음운적 특성을 설명할 것. ○ ㉠의 이유를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 ○ (2)를 토대로 (3)에서 ‘맞디- > 말기-’의 형태 변화를 설명할 것. 	<p>3. 구개음화의 발생</p> <p>▶ 구개음화의 개념 →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p> <table border="1" data-bbox="813 862 1476 963"> <tr> <td>구개음화</td> <td>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ㅍ'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td> </tr> </table> <p>▶ 구개음화는 적용 대상에 따라 ㄷ 구개음화/ㄱ 구개음화/ㅎ 구개음화로 구분할 수 있음</p> <p>▶ 대체로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와서 새로 생겨나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 경구개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p>	구개음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ㅍ' 앞에서 경구개음 으로 바뀌는 현상
구개음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ㅍ' 앞에서 경구개음 으로 바뀌는 현상		
<p align="center"><예시 답안></p> <p>현대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저:저’, ‘장:장’이 대립을 이룬다(스-계열 뒤에 반모음 ‘j’가 자유롭게 올 수 있었고 단어 뜻이 구별되기도 했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에서 /ㄷ/은 경구개음이 아니라 치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구개음화는 음운 체계 내에서 ‘ㄷ, ㅌ, ㅍ’가 경구개음일 것을 요구하므로 ‘ㄷ, ㅌ, ㅍ’가 치음이었던 15세기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p> <p>(3)의 ‘맞디-’에 /ㄷ/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맞지-’가 되었는데, 이 /ㄷ/을 /ㄱ/구개음화된 /ㄷ/인 줄 알고 오분석하여 /ㄱ/으로 잘못 교정한 결과 ‘말기-’가 되었다.</p>	<p>※ 참고 : 구개음화 (김주필, 1999, 새국어생활 제9권 제2호)</p> <p>3. 구개음화의 종류와 특성</p> <p>3.2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p> <p>3.2.1 과도교정</p> <p>① 구개음화 관련 현상으로 먼저 앞서 살펴본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현상을 들 수 있다. ‘질들이다>길들이다, (덤심)>점심>점심, (담척)>점척>김치’ 등에서 보듯이 나 반모음 앞에서 원래 구개음이던 것이나 아니면 ㄷ 구개음화의 결과인 구개음 ㄷ 등을 오히려 비구개음인 ㄱ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화자들이 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비표준어의 표지로 생각하여 구개음화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p> <p>② 이 현상은 나 반모음 앞에서 원래의 ㄷ이었던 것을 의식하여 구개음화된 ㅌ을 ㄷ으로 되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확산되면서 원래 구개음이었던 것인지 치조음이었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원래의 구개음(또는 ㄷ구개음화의 결과인 구개음도 포함하여)이었던 것까지도 비구개음인 ㄷ으로 바꿈으로써 생긴 현상으로 간주된다. ㄷ구개음화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원래의 ㅌ을 ㄷ으로 바꾸었지만 ㄷ구개음화가 일반화되고부터는 원래의 ㅌ을 ㄱ으로 바꾸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과도교정의 방향이 바뀐 이유는 이 시기에 ㄷ구개음화가 일반화되어 ㅌ을 ㄷ으로 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남부 방언에서는 ㄱ구개음화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p>		




B형 1번	작문 영역	강좌명	1-3월 이론반/ 파이널 자료
-------	-------	-----	------------------

기출문제 B형 1번(채점자 신뢰도)	적중 근거 자료 (1-3월 이론반/ 파이널 자료)				
<p>작문 평가 상황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문제로,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작문 채점 상황에서는 최소 2명의 채점자가 (㉠ 독립)적으로 채점할 것이 권장된다. 채점자 간 신뢰도를 추정하려면 채점자가 상호 (㉡ 독립)적으로 채점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p> <p>작문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자 교육을 통해 채점자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 척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점자들이 작문 평가 척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채점자들마다 평가 척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 척도의 점수에 대응하는 각각의 전형적인 (㉢ 예시문)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시문)은/는 평가 척도가 구현된 양상을 글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텍스트를 가리키는데, 이를 활용하면 평가 척도가 채점 상황에서 어떻게 부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p>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  <p>㉡ 파이널 자료 신뢰도의 개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채점자 내 신뢰도</td> <td>한 명의 채점자가 시간차를 두고 한 편의 글을 반복적으로 채점했을 때, 이 두 번의 채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td> </tr> <tr> <td>채점자 간 신뢰도</td> <td>한 편의 글을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두 채점자가 산출한 점수 간의 일치도를 의미</td> </tr> </table> <p>·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의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문 평가에서 채점자 내 신뢰도는 채점자 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 반대로 채점자 내 신뢰도가 높더라도 채점자 간의 신뢰도는 낮을 수 있음. 채점자 각각이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채점했다고 해도 이러한 잣대의 수준이 각 채점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을 내면화하고, 채점자 간 상호 협의를 수시로 진행 • 키워드 : 채점의 엄격성, 일관성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채점자 내 신뢰도	한 명의 채점자가 시간차를 두고 한 편의 글을 반복적으로 채점했을 때, 이 두 번의 채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	채점자 간 신뢰도	한 편의 글을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두 채점자가 산출한 점수 간의 일치도를 의미
채점자 내 신뢰도	한 명의 채점자가 시간차를 두고 한 편의 글을 반복적으로 채점했을 때, 이 두 번의 채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				
채점자 간 신뢰도	한 편의 글을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두 채점자가 산출한 점수 간의 일치도를 의미				


B형 3번	화법 영역	강좌명	1-3월 이론반
-------	-------	-----	----------

기출문제 B형 3번(비언어적 의사소통)	적중 근거 자료 (1-3월 이론반 마인드맵)
<p>교사: 잘 설명했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말과 표정이 불일치할 때 어느 쪽을 더 신뢰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소통 중 타인의 언어적 메시지와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할 때 대체로 (㉠). 왜냐하면 (㉡).</p> <p>학생: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의사소통에서 준언어와 비언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p> <p>교사: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준언어·비언어가 의사소통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중 하나는 대화에서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쳐 대화 시작의 의도를 알리거나, ㉢ 준언어를 활용해 순서 교대의 적정 지점을 알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일기문에서 '나'가 눈살을 찌푸려 친구가 말을 잊지 못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p> <p>학생: 또 다른 역할은요?</p> <p>교사: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 군대에서 거수 경례를 하는 것, 예배드릴 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려 기도하는 것, 일기문에서 '나'와 친구가 화해의 뜻으로 악수한 것 등이 ㉣ 또 다른 역할을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p>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대화 참여자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자: 기본적으로 언어적 메시지를 비언어적 메시지보다 신경쓰 청자: ① 기본적으로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신뢰 ②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될 때 비언어적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3) 대화시 상호작용 단서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 참여자는 여러 단서로 대화의 시작과 끝, 전개부의 흐름, 화제 전환 등을 조절하는 단서를 제공함 (ex) 눈맞춤, 휴지, 고개 끄덕임, 눈살 찌푸리기 좌석 배치, 상대와의 간격과 같은 공간과 관련된 메시지는 상하 관계나 서로에 대한 호오를 드러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4) 자기 표현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언어적 메시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자기 표현의 기능을 가짐 의상, 신체 장식, 머리 모양, 장신구, 소지품 등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직업, 관심사 등을 표현함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5) 관습적 행위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관습적 행위를 수행 (ex) 인사, 악수, 절 등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서술할 것. ○ ㉢의 구체적인 예를 1가지 제시하고, ㉣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에는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에는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는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본능적으로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가 들어간다.</p> <p>㉢의 예시는 '잠시 휴지를 두거나 눈을 맞춰 순서 교대의 신호를 알린다.'이다. 또한 ㉣은 '관습적 행위를 수행한다.'이다.</p>	

B형 5번	현대 문법 영역	강좌명	1-3월 문법 이론반
-------	----------	-----	-------------

기출문제 B형 5번(중의성)	적중 근거 자료 (1-3월 문법 이론반 빙자료)												
<p>의미론적으로 문장에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에 쓰인 어휘나 문법 형태소가 다의적이거나 동음어가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 둘째, 문장의 통사 구조가 둘 이상으로 분석될 경우 중의성이 발생한다. 셋째, 부정(否定) 표현, 수량 표현, 보조사 등의 의미가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 통사 구조와 관련된 둘째가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p> <p>(1) 가. 예쁜 언니의 모자 나.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 다.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p> <p>(1가)은 ㉠ ‘[예쁜 [언니의 모자]]’와 ‘[[예쁜 언니]의 모자]’의 두 가지로 통사 구조가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다. (1나)과 (1다) 역시 통사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 예이다.</p> <p>한편 (2)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은 화행적 의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의성의 양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p> <p>(2) 어제 덩지 않았니?</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나)과 (1다)의 중의성이 드러나도록 각각 2가지 통사 구조를 ㉠의 형식으로 제시할 것. ○ (2)의 중의성을 문말 억양을 언급하며 설명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1나)은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로 통사 구조가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다. 또한 (1다)은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로 통사 구조가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다.</p> <p>(2)의 문말 억양을 올리면 더웠는지 안 더웠는지를 묻는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되고, 문말 억양을 내리면 어제 더웠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된다.</p>	<p>1. 확인문의 개념과 예시</p> <p>▶ 확인문의 개념</p> <table border="1"> <tr> <td>개념</td> <td>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예시></p> <p><예시></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358)</td> <td>가. 어제는 덩지 않았니?</td> <td>부정 + 시제</td> </tr> <tr> <td>나. 민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니?</td> <td>부정 + 시제</td> </tr> </table> <p>▶ (358)의 두 문장은 만약 문장 말의 억양을 올리면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되기도 함</p> <p>▶ 그런데 문말 억양을 내리면 그러면 부정문의 의미는 사라짐 ⇒ 확인문으로만 기능</p> <p style="text-align: right;">내용 이어짐</p> <p>▶ 다음 (359)는 확인문의 의미로만 해석됨</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359)</td> <td>가. 어제는 {더웠지 않니, 더웠잡니}?</td> <td>시제 + 부정</td> </tr> <tr> <td>나. 민수가 그 일을 {했지 않니, 했잡니}?</td> <td>시제 + 부정</td> </tr> </table> <p>▶ (359)에서와 같이 부정문의 의미가 사라지고 확인문의 의미로만 해석되면 시제 선어말 어미가 선행 용언에 붙고 -지 않-도 -잡-으로 줄어들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4.9.3.4 부정문 관련 제약</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개념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	(358)	가. 어제는 덩지 않았니?	부정 + 시제	나. 민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니?	부정 + 시제	(359)	가. 어제는 {더웠지 않니, 더웠잡니}?	시제 + 부정	나. 민수가 그 일을 {했지 않니, 했잡니}?	시제 + 부정
개념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												
(358)	가. 어제는 덩지 않았니?	부정 + 시제											
	나. 민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니?	부정 + 시제											
(359)	가. 어제는 {더웠지 않니, 더웠잡니}?	시제 + 부정											
	나. 민수가 그 일을 {했지 않니, 했잡니}?	시제 + 부정											

B형 6번	중세 문법 영역	강좌명	9-11월 모의고사반
-------	----------	-----	-------------

기출문제 B형 6번(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적중 근거 자료 (모의고사 5회, 9회)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들어갈 말을 (2ㄴ)과 (2ㄷ)의 문법 형태소가 실현된 양상을 언급하며 쓸 것. ○ (3)과 (4)를 참고하여 ㉠과 대비되는 ㉡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고, ㉡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2ㄴ)과 같이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 때 알게 된 일이나 경험을 돌이켜 표현할 때에는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가 쓰이고, (2ㄷ)과 같이 주어가 1인칭 일 때에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인다. 그런데 (2ㄱ)과 같이 선어말 어미 '-더-'와 '-오-'가 함께 나타날 때에는 이들이 결합하여 '-다-'의 형태로 나타난다.</p> <p>(3)의 ㉠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고 있으나 (4)의 ㉡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 겸양(청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p>	<p>㉠ 모고 9회 8번 해설</p> <p>-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다른 어미와 결합할 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어미와의 결합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59)의 현상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오'가 '다'가 되는 것, '거+오'가 '과'가 되는 것, '시+오'가 '샤'가 되는 것,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로-'가 되는 것 모두 음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체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59) ㄱ.</td> <td>-다- ← -더-+-오/우-</td> </tr> <tr> <td>ㄴ.</td> <td>-과- ← -거-+-오/우-</td> </tr> <tr> <td>ㄷ.</td> <td>-샤- ← -시-+-오/우-</td> </tr> <tr> <td>ㄹ.</td> <td>-로- :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의 이형태</td> </tr> </table> <p>㉡ 모고 5회 3번</p> <p>교사: 네 맞아요. 이번에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3)은 15세기, (4)는 17세기의 문헌이라는 점이에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3) 第一夫人이 太子를 나쁘보시니 <월인석보 2:211> (4) 형님이 일 업스시옵고 진스로 낮기를 명하옵습다가 <연간 122></p> </div> <p>학생: 선생님 (3)의 화자는 서술어 '나쁘다'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옵-'을 실현하여 '太子'를 높이고, '-(으)시-'로 '第一夫人'을 높이고 있어요.</p> <p>교사: 맞아요. (3)은 '-습-'과 '-(으)시-'가 결합해 있어요. 다음으로 (4)의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옵-'은 '-습-'이 변화한 것이에요. 또한 선어말 어미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아서 '-옵-'은 (㉡ 화자 겸양(청자 높임))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59) ㄱ.	-다- ← -더-+-오/우-	ㄴ.	-과- ← -거-+-오/우-	ㄷ.	-샤- ← -시-+-오/우-	ㄹ.	-로- :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의 이형태
(59) ㄱ.	-다- ← -더-+-오/우-								
ㄴ.	-과- ← -거-+-오/우-								
ㄷ.	-샤- ← -시-+-오/우-								
ㄹ.	-로- :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의 이형태								

B형 7번	현대 국어 영역	강좌명	7-8월 문제풀이반/파이널 특강
-------	----------	-----	-------------------

기출문제 B형 7번(변별적 자질)	적중 근거 자료 (문제풀이반 2회, 파이널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를 분석하여 ㉠, ㉡을 각각 설명할 것. ○ (3)과 (4)를 분석하여 ㉢, ㉣을 각각 설명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2ㄱ)에서 ‘물-이’는 ‘배-가’와 달리 ‘밥-이’와 같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므로 /ㄹ/은 [+자음성]을 보인다. 반면 (2ㄴ)에서 ‘알-면’은 ‘먹-으면’과 달리 ‘보-면’과 같이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으므로 /ㄹ/은 [+모음성]을 보인다.</p> <p>(3ㄱ)처럼 앞 음절 종성이 연음되어 음절 초성에 자음이 연속으로 오는 경우 음절 구성이 불가능하지만, (3ㄴ)은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 초성으로 연음되어도 음절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w/는 [-자음성]을 보인다. 반면 (4ㄱ)의 단모음 /ㅏ/는 단독으로 음절 구성이 가능하지만, (4ㄴ)의 반모음 /w/는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w/는 [-모음성]을 보인다.</p>	<p>㉠ 문제풀이반 2회 2번</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1) ㉠을 활용해 자음, 모음, 반모음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자음</th> <th>모음</th> <th>반모음</th> </tr> </thead> <tbody> <tr> <td>[자음성]</td> <td>+</td> <td>-</td> <td>(㉠)</td> </tr> <tr> <td>[성절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한강’을 ‘[항:강]’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운 현상을 ㉢를 참고해 변화된 자질을 ‘ㅏ’로 나타내면 (㉢), (㉣) (이다).</p> <p>㉡ 파이널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2. 변별적 자질의 종류</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1] 주요 분류 자질</p> <p>① [자음성]: [consonantal]. 발음할 때 기류의 방해가 일어나는 성질. ↳ 자음은 [+자음성], 단모음과 반모음은 [-자음성]</p> <p>② [성절성]: [syllabic]. 음절 주성의 기능을 하는 성질. ↳ 단모음은 [+성절성], 자음과 반모음은 [-성절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자음</th> <th>단모음</th> <th>반모음</th> </tr> </thead> <tbody> <tr> <td>자음성</td> <td>+</td> <td>-</td> <td>-</td> </tr> <tr> <td>성절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음	모음	반모음	[자음성]	+	-	(㉠)	[성절성]	-	+	(㉡)		자음	단모음	반모음	자음성	+	-	-	성절성	-	+	-
	자음	모음	반모음																						
[자음성]	+	-	(㉠)																						
[성절성]	-	+	(㉡)																						
	자음	단모음	반모음																						
자음성	+	-	-																						
성절성	-	+	-																						



2025 - 04(A형/기입형)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되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쓰시오. [2점]

(가)
군위(君位)를 보비라 흠씬 큰 명(命)을 알외요리라 바를 우희 금탑(金塔)이 소스니
자하로 제도(制度) | 날씩 인정(仁政)을 맞도리라 하늘 우희 금척(金尺)이 느리시니 (83장)

도상(道上)에 강시(僵尸)를 보샤 침식(寢食)을 그쳐시니 민천지심(旻天之心)에 꺾 아니 뜬디시리
민막(民瘼)을 모르시면 하늘히 브리시느니 이 뜰들 너디 마르쇼서 (116장)

백성(百姓)이 하늘히어늘 시정(時政)이 불홀(不恤) 흠씬 역배군의(力排群議) 하샤 사전(私田)을 고티시니
정감(征斂)이 무예(無藝) 하면 방본(邦本)이 곧 여러느니 이 뜰들 너디 마르쇼서 (120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나)
최근대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왕조의 건립 과정에서 개국의 시조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천명(天命)’을 부여받았다고 함으로써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용비어천가」의 편찬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그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신탁(神託)을 받았다는 것을 (㉠)이라는 군왕의 상징적 증거물을 통해 현시함으로써 이성계와 그의 왕조를 신성화하였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편찬자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군왕을 향한 정치적 권계(勸誡) 의식을 명시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천명의 존재는 이론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종래의 천명론이 아니라 ‘유교적 천명론’에 기대어 자신들의 요청 사항을 군왕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교적 천명론은 초월자의 계시에 의해 천명이 확보된다고보다는 ‘민심(民心)’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통해 그 실재 여부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군왕이 민심을 상실할 경우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천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시 답안>

- ㉠ 금척(金尺)
- ㉡ 하늘히 브리시느니

적중!!!	
문항 번호	A형 4번 기입형
배 점	2점
출제 영역	악장 <용비어천가>에 대한 이해
적중 내역	모고 9회 A형 4번 관련
	고전문학 범 p232

<악장 작품들>		
신체	용비어천가 <small>정인지 등</small>	천명에 의한 건국의 정당성 및 육조의 업적 찬양, 후왕에 대한 권계
	월인천강지곡 <small>세종</small>	수양 대군의 석보상절을 보고 화답하여 지은 찬불가
속요체	신도가(新都歌) <small>정도전</small>	새 도읍지 찬양, 태조의 성덕 칭송
	감군은(感君恩) <small>상진</small>	임금의 은덕 칭송



2025 - 02(B형/ 기입형)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되 ㉠은 1어절로, ㉡은 3어절로 쓰시오. [2점]

(가)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즈 세술장즈 들장즈 열장즈에 암돌적귀 수돌적귀 비목걸
 시 쪽닥 박고 크나큰 줌을쇠로 숙이숙이 츠엿는디 병풍(屏風)이라
 덜걱 접고 족자(簇子) | 라 덕디골 말고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줌 못 드러 호노라

- 작자 미상 -

(나)

초장에서 화자는 추상적 존재인 ‘한숨’을 의인화된 침입자로 설정함으로써 물리적인 행위가 불가능한 존재를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틈’의 의미에 주목할 때 ‘한숨’의 성격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어지는 중장에서는 ‘한숨’의 침입을 막아 내기 위한 작중 화자의 고안이 ‘고모장즈’에서 ‘크나큰 줌을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물들의 숨 가쁜 열거를 통해 제시된다. 또한 중장의 (㉠)은/는 어떤 식으로든 ‘한숨’을 막아 내겠다는 화자의 강인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는 화자의 물리적 행위가 신중하고 또 치밀함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숨은 이 삼엄한 방비를 뚫고 들어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바, (㉡)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자신이 느낀 그것의 강렬함을 과장의 수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의인화된 ‘한숨’은 종장에 이르러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각인된다. 이제 화자는 이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추상적 대상을 물리적 방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희극적 발상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고난이 우리네 삶의 과정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존재라는 씁쓸한 삶의 진실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 답안>

- ㉠ 숙이숙이
- ㉡ 병풍(屏風)이라 덜걱 접고/ 족자(簇子) | 라 덕디골 말고

적중!!!	
문항 번호	B형 2번 기입형
배 점	2점
출제 영역	사설시조에 대한 이해
적중 내역	고전시가 교재 p291

(라)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 장즈 세술 장즈 들 장즈 열 장즈에 암돌적귀 수돌적귀 비목걸
 숙이 츠엿는디 屏風(병풍)이라 덜걱 접고 簇子(족자) | 라 덕디골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줌 못 드러 호노라.



2025 - 10(A형/ 서술형)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우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나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쫓는 썸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나리고
눈 우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 오장환, 「성탄제」 -

[A]

<예시 답안>

‘어린 사슴’의 ‘바람’은 어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썸과 약초’를 통해 폭력에 의해 훼손된 어미의 생명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어린 사슴의 바람은 생명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의미하는 ‘성탄제’를 그 배경으로 하여 강조되고 있다.

[A]는 눈과 핏방울(흰 색과 빨간 색), 밤과 햇불(검은 색과 붉은 색)의 시각적 색채 대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제가 조선 민중을 억압하는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적중!!!

문항 번호	A형 10번 서술형
배 점	4점
출제 영역	시인 오장환 수업 - 2024년 6월 10일
적중 내역	현대시 수업 빔 p392~

오장환 (1918 ~1951)



<보기>

성탄제는 관습적으로 ㉠ 생명, 구원 등을 의미한다. ‘성탄제’는 이 시에서 시어로 쓰이지 않았지만 제목을 통해 시적 배경으로서 환기된다. 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성탄제의 관습적 의미는 ㉡ ‘어린 사슴’의 바람과 연관되며 시의 주된 정서를 드러내는데 관여한다. 한편 이 작품은 여러 종류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구체화하는데, ㉢ 시가 창작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환기하는 상황은 당대의 파시즘적 억압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 중 1가지를 사용하여 ㉡의 내용을 설명하고, ㉡에 담긴 시의 주된 정서를 중심으로 ‘성탄제’가 시적 배경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서술할 것.
- [A]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쓰고, [A]가 환기하는 상황을 ㉢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2025 - 11(A형/ 서술형)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인민군이 점령한 고향 마을에서 인민재판이 열리고, 현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총을 탈취해 동굴로 도망친다.

오랜 회상에 잠겼던 현은 감았던 눈을 크게 뜨며 어두운 하늘에 송송이 박힌 별들을 쳐다보았다. 뚝! 동굴 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어느덧 바람은 자고 별레 소리가 있었다.

[A] 그다음의 일을 더듬을 수 있는 분명한 기억이 없었다. 그것은 불연속적. 순간적으로 내민 자기의 주먹에 쓰러지던 연호. 앞에 버티고 섰던 보안서원의 소총을 낚아채고 군중의 틈으로 빠져나간 기억. 수라장이 된 네거리. 집행자들의 고향과 군중들의 비명. 몇 발의 총성. 눈앞에 드리웠던 황갈색 베일. 그 베일을 통해 눈에 뛰어들던 땅을 밟으며 어디를 어떻게 달리었던지. 쫓기던 끝에 ××강 하류에 이르러 물속에 뛰어들던 기억. 그래도 소총은 그 손에 있었다.

‘그때의 충동.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마음의 충동은 그 무엇이었을까. 이 검은 눈으로 목격한 살인. 목적은 일종의 목인. ㉠ 목인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그대로 늘이고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줄. 그리고 아픔. 희생자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내려지는 아픔은 곧 나 자신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가해지는 아픔이었다. 어찌하여? 나와 그와 그리고 모든 군중. 거기에는 아무런 육체적인 연결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이다.’

[B] 현은 지난날의 그 몇 번인가의 저항의 충동을 생각해 보았다. 일인(日人) 교수에 대한 반발 - 자기혐오와 함께 몸을 오므린 퇴각. 학교장에 대한 항의 - 겸연쩍어 사직을 하고 만 패배. 아니 패복. 일군(日軍)에서의 탈주 - 또다시 연안(延安)에서의 도주, 도피의 연속.

어느 때 정면으로 싸워 본 일이 있었던가. 단 한 번. 그것은 극히 어리던 시절의 일. 할아버지의 흑을 두고 얼굴에 흘린 피와 갈기갈기 찢긴 옷. 땀밖에도 할아버지는 노하셨지. 모든 거북한 일에 등을 돌리는 습성이 내 가슴에 깃든 것은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리고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린 삼십 년의 결산은 결국 도망을 놓았다는 것이다.

... (중략) ...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터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마치 돌맹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살아 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살아 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을 휘몰아 왔다. 현은 잃어져 가는 생명의 힘을 둔우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

현은 기를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속에서 갑자기 우직 하고 깨뜨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그것은 다음 차원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무수한 불꽃. 찬란한 그 섬광. ㉡ 불타는 생애의 의욕, 전신을 흐르는 생명의 여율. 통절히 느껴지는 해방감. 현은 끝없이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

‘나머지 한 알의 탄환. 것처럼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할 것이다. 다음은 - 그것은 더욱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한 가지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 없도록 결박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코 상황은 바삭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 (중략) ...

이웃을 보는 눈 귀 하나에도 조심을 담고, 건네는 한마디의 얘기에 도 남을 괴롭힐사 애쓰는 인간들. 늙은, 젊은, 어린 남녀의 수많은 얼굴들. 그리운 그 얼굴들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외로울 수 없다. 이제부터 그들 가운데서 잃어진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청부업자들을 격리하고 주어진 땅 위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세우자. 거기에 내 덩의 삶을 바치는 것이다. 청부업자들의 교만과 포악을 곧 같은 인간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돌리고 한결같이 고통을 참고 견디어 온 ‘조용한’ 인간들. 광기의 청부업자는 사라지고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가 와야 한다. ㉢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 ……

- 선우휘, 「불꽃」 -

<작성 방법>

- [A]의 서사적 기능을 사건 전개상 [B]와의 관계 측면에서 서술하고, [B]의 서사적 기능을 인물의 성격 변화 측면에서 [C]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찾아 쓰고, ㉠과 ㉢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서술 할 것.

<예시 답안>

‘현’은 [B]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항의 충동은 있었으나 결국 도피하는 삶을 소극적 살아왔다. [A]는 이 작품에서 ‘현’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서사적 기능을 한다. [C]에는 더 이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려는 현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의 성격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B]다.

㉡가 부각된 부분은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이다.

㉠은 소극적이고 도피적 인간, ㉢은 참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에서 ㉢으로의 변화를 위한 ‘자기 개혁의 의지를 실천하는 인간의 결의’가 주제이다.

적중!!!	
문항 번호	A형 11번 서술형
배 점	4점
출제 영역	현대소설 8월6일 수업 - 선우휘, <불꽃>
적중 내역	현대문학 빔 p515

1950년대 - 002. 불꽃 (선우 휘)

<등장 인물>

고현 1 다카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인물 (소극적인 삶) • 할아버지 흑을 놀리는 아이들과 옷이 다 찢길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지만 할아버지에게 질책을 당함 (김 주사 아들을 뺏음) 그 후 불의를 보면 잘 참음 •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을 지님 • 어머니 다리에 난 상처의 원인을 뒤늦게 깨달음
--------------	--

2025 - 12(A형/ 서술형) 다음을 읽고, 작품의 특징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또 어떤 대장부가 있어 배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흰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노쇠하여 비틀거리며 굽어진 허리로 걸어와 말했다.

“저는 서울 성 밖의 큰길 가에 살면서, 아래로는 넓은 들판의 경치를 바라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높다란 산에 기대어 사는 ㉠ 백두옹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좌우에서 공급하는 것이 비록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옷장에 옷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아픈 침으로 독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을 만드느니 삼[麻]이 있더라도 띠풀을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무릇 모든 군자는 어느 세대에나 없지 않으니, 모르겠습니까만 왕께서도 그러한 뜻이 있으신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니, 화왕이 말했다.

“장부의 말에도 합당한 것이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함이 좋을까?”

그러자 대장부가 다가와 말했다.

“저는 왕께서 총명하셔서 이치와 옳은 것을 알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자 중에는 사특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한 자가 드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맹가(孟軻)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낮은 낭중(郎中) 벼슬에 묶여 늙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였으니 저인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 설총, 「풍왕서」 -

(나)

갑자기 문밖이 소란해지더니, 문지기가 손님이 왔다고 급히 아뢰었다. 왕은 천천히 말했다.

“오래전에 ㉡ 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과 모임 약속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마침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빈객으로 높이 대우해 왔으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전각에서 내려가 용모를 가다듬고 기다렸다.

한 사람은 푸른 수염에 키가 크고 기개가 높았다. 또 사람은 곧고 준엄하며 절조가 말쑥하고 깨끗한 모양이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런 관을 쓰고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턱의 향기가 얼굴에 가득하였다. 세 사람이 이르러서는 길게 인사만 하고 절을 하지는 않으면서 말했다. “저희는 야인(野人)이라 성품이 속되고 게을러서 예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왕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예우하였다. 드디어 전각에 올라와서는 자리를 정해 주고 마주 보고 앉았다.

[중략 줄거리] 옥비, 부용성주 주씨 등도 함께 자리하였다. 모두 돌아가며 시 한 편씩을 읊자, 왕은 모두에게 찬사의 말을 건넸다.

이 부인과 반희가 노래하자, 왕이 시동에게 명하여 옥돌 쟁반에 화려한 채색 비단을 담아 하사하며 말했다.

“마땅히 비단을 내릴 만하다.”

두 사람은 왕의 은혜에 절하고 자리에 앉았다. 조래선생이 언짢아하는 얼굴로 수양처사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취하면 물러가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사도 없이 담을 넘어 훌쩍 가 버렸다.

이 부인은 농담으로 수양처사와 동리은일에게 말했다.

“옛날에 어떤 처사가 노래에 놀라 담을 넘어 도망했습니다. 좌중의

어떤 이가 희롱하며 말하기를 ‘홍분(紅粉)의 즐거움을 산새가 알 리 없지. 단판(檀板) 소리 울리니 놀라서 날아가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말함입니다.”

두 사람은 대답 없이 잇달아 나가 버렸다. 안빙도 가 보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작별을 아쉬워하며 안빙을 배웅하였다. 왕이 예관에게 명하여 전별 의식을 행하는데, 채단과 수놓은 비단, 금은, 진귀한 노리개 등이 뜰에 즐비하였다. 안빙은 절을 하고 문을 나섰다.

한 미인이 문밖에 서 있다가 안빙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 놀이는 즐거우셨습니까?”

… (중략) …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소리가 랭 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하게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곧 한바탕 꿈이었다. 술기운이 몸에 배어 있고 꽃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다. 명한 정신으로 일어나 앉으니 부슬비가 해나무에 내리고 천둥의 여운이 은은하였다.

- 신광한, 「안빙몽유록」 -

<보기>

우언(寓言)은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 ㉢ 인간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가)는 신라의 학자 설총이 왕에게 들려주었다는 경계(警戒)의 우언이다. (나)는 조선 중기의 문신 신광한이 지은 우언 형식의 작품으로, 입몽 및 각몽 표시와 더불어 ㉣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작성 방법>

- ㉠과 ㉡에 왕에 대해 보이는 언행의 대비적 양상을 쓰고,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을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쓰고,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것.

<예시 답안>

㉠은 왕에 대한 행동은 공손하지만, 왕에게 전하는 말은 경계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은 왕에 대한 행동은 무례하지만 왕에게 전하는 말은 자신들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작가는 (가)와 (나)에서 충신과 왕의 관계를 토대로 한 유교적 이상국가를 추구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꽃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다’이다. 그리고 몽중에서 ‘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과 같은 군자와 ‘이 부인과 반희’같은 소인배들이 왕 주변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적중!!!

문항 번호	A형 12번 서술형
배 점	4점
출제 영역	의인화 문학 - 설화, 몽유록
적중 내역	모고 3회 B형 6번



▪ 초기 작품으로 거론되는 심의(沈義 : 1475~?)의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과 신광한(申光漢) : 1484~1555)의 <안빙몽유록(安빙夢遊錄)>은 각각 몽중에 문장 왕국과 꽃의 세계를 방망한 이야기로, 주인공의 목말을 환상적 공간 속에서 성취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계유정난, 임병양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자 몽유록은 이념과 현실 사이의 모순과 그에 따른 정신적 방황을 그리면서 문제를 유교적 이념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의식을 보여 주게 된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임제(林悌 : 1549~1587)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정치적 사건에 희생된 영남 사림의 거두

2025 - 10(B형/ 서술형)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어름 우희 댓답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댓답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1연)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즘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 하니 도화(桃花) | 발(發)흐두다
도화는 시름 업서 쇼춘풍(笑春風)흐는다 쇼춘풍흐는다 (2연)
- 「만전춘별사」 -

(나)
연광(年光)이 속흥(倏忽)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배오리의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고나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디 님이 날 꿰소나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구구(口口)를 원망(怨望)하니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사름이 나단 말가
못 피고 날 저른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서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문는 고
원근(遠近)을 모라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쫓 처신들 싱카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른
열두 새 김도 길사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초고 초 제 차최는 섯다 치니
너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는 무삼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 업다
그을 달 방(房)의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하숨 짓는 눈물 속절업시 행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펼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니
- 허난설헌, 「규원가」 -

(다)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시간은 천체의 주기성에 기반하여 측정되는 객관적 시간이며, 심리적 시간은 말 그대로 주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자는 객관적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해당 시간을 경험하는 ㉠ 주체의 처지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주체의 처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공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주체가 거처하는 좁은 범위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 너머의 ㉡ 외부 세계에까지 미치는데, 주체의 처지는 특정한 정서를 낳고, 그 정서의 종류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식 역시 다양하게 발현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은 인간의 감정을 주로 다루는 서정시에서 정서의 추상성을 구체화 하는 데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작성 방법>

- ㉠을 중심으로, (가)의 1연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설명하고 (가)의 2연에서 추정할 수 있는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서술할 것.
- (가)와 (나)에서 ㉡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을 찾아 쓰고, 이를 활용하여 두 작품의 정서 형상화 방식을 화자와 ㉡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예시 답안>

(가)의 1연의 주체는 '임과 밤을 함께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화자는 객관적 시간인 '밤'을 심리적으로 짧게 인식하여 그 시간을 심리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나)의 주체는 외로운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화자는 객관적 시간인 '밤'을 주관적으로 길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은 '시름'이다. (가)에서는 '서창 밖 도화'는 화자와는 달리 시름이 없다고 했고, (나)에서는 화자가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름이 없다고 표현했다.



적중!!!	
문항 번호	B형 10번 서술형
배 점	4점
출제 영역	고려가요 <만전춘별사>와 가사 <규원가> 이해
적중 내역	모고 3회 A형 4번
	모고 4회 B형 6번
	고전문학 범 p145~, p281~

<고전시가> 고려속요 - 007. 만전춘별사

- 제목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 전각에 가득한 봄
- 제목의 의미와 작품 내용의 연관성이 없음
 - 내용 - 노골적이고 퇴폐적이지만 문학성은 높음
 -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1장 임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픈 욕망
어름 우희 댓답자리 보와 /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덩
어름 우희 댓답자리 보와 /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덩
정(情) 둔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고전시가> 가사 - 008. 규원가

- <작품의 이해> 원전: 최초 여류 가사, 내방가사의 선구적 작품
- 경박하고 방탕한 남편을 만나 평생을 한과 그리움으로 보낸 여인의 애달픈 사연 (2000-8-[1-3](152)/2012-30(234))
 - 남성 위주의 사회가 가져오는 병폐를 형상화한 작품
 - 섬세하고 애절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표출하면서도 봉건 제도 하에서 인종만 해야 하는 여인의 원망스런 한과 체념하는 모습을 표현
 - 그러면서도 온화하고 품격을 잃지 않는 우아한 시풍

국어 윤희재/황건우 팀의 더 많은 합격 비법이 궁금하다면?

2026학년도 회소 티처스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교원 임용 1위,
우리는 최초를 만듭니다.

 **KG** 에듀원 교원임용 회소/샘플러스